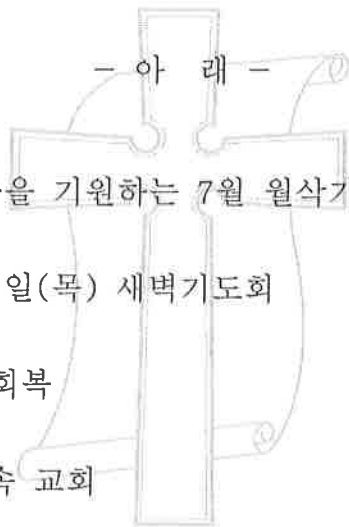


한국교회 회복을 기원하는 7월 월삭기도회

총회는 제105회 총회 주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를 실현하기 위해 매월 첫날 “한국교회 회복을 기원하는 월삭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일된 메시지와 기도로 함께 월삭기도회를 진행하기 위해 설교영상과 설교문, 기도영상과 기도문, 공동기도제목 등을 보내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한국교회 회복을 기원하는 7월 월삭기도회”를 진행하오니 교회에서 적극 참여하여 세계선교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한국교회 회복을 기원하는 7월 월삭기도회
2. 일 시: 2021년 7월 1일(목) 새벽기도회
3. 7월 주제: 세계선교의 회복
4. 참석 대상: 본 교단 소속 교회
5. 제공 자료: 설교문, 기도문, 공동기도제목 등

(※ 총회홈페이지에 설교영상(15분)과 기도영상(5분) 다운 가능)

<http://asq.kr/yplQy>

붙임1. 7월 월삭기도회 설교문

2. 7월 월삭기도회 기도문

3. 7월 월삭기도회 공동기도제목

주여, 다시 선교의 회복을 갈망합니다 (합3:17~18)

“17.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합3:17-18)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하는 주제로 희망을 선포하며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심각한 코로나로 인해 제한적인 예배는 물론, 성도들의 생활 현상은 어렵고 힘든 일들의 연속입니다. 미자립 상가 교회는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교회 폐쇄 신청을 하거나 이미 문을 닫아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주여, 다시 선교가 회복되기를 갈망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토록 회복을 갈망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잠깐이면 될 것 같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1년 반 동안 이어지면서 너무도 많은 분야에서 멈춤과 단핍으로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신 보급보다 코로나 확진이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일본도 하루 확진 자가 수천명씩 발생하면서 긴급 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맞이하면서 선교사님들의 겪는 어려움이 가속되고, 선교의 현장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훈련받고 선교사로 파송된 선교사는 93개국 816가정 1,547명입니다. 그 중에 약 150가정이 선교지로 들어가지 못하고 1년 이상 국내에 체류 중인 상황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추방을 당하고, 또 여러 선교사들이 코로나에 노출되어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교회의 어려움으로 인해 선교비가 중단되는 곳도 많이 발생하면서 선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계선교에 대한 멈춤과 여러 가지 장벽을 만난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세계 선교의 회복을 위해 하박국의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回復)이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을 말합니다.

★갈망(渴望)은 '간절히 바랍'이란 뜻입니다.

★다시는 '방법이나 방향을 고쳐서 새로이, 또는 하다가 그친 것을 계속하여'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다시 갈망한다는 것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찾는 것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이방나라인 앗수르와 바벨론에게 눌리고, 뺏기고, 망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이 땅에 불의는 사라지지 않는가? 죄 짓는 사람들이 거리를 당당하게 활보하고, 오히려 죄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고 힘들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박국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이까" "어찌하여" 하며, 안타까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범한 것은 알겠지, 어찌하여 하나님도 모르고 악랄한 짓을 일삼는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려 하십니까? 하며 깊이 탄식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2:4) 비록 지금 당장은 하나님 없는 바벨론에게 눌리고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살다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면서 본질로 돌아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힘입

어야 합니다. 오늘 어려운 이 시대 상황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선교의 회복을 갈망하는 우리에게는 먼저 본질적인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17절“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서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없으며, 없으며, 없을지라도’의 조건과 상황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18절“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없고,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걱정과 염려에서 기쁨으로 승화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신앙이 다시 회복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의와 불법이 여전히 횡행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떤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본질적인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은 아직 힘들고 어려운 상태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 불평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선교 현장도 비록 열악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신앙의 본질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 선교의 회복을 갈망하면서 부흥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박국 3:2절“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 진노 중에라도 궁핍을 잊지 마옵소서” 유다가 망한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하박국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의 어렵고 힘든 현실을 넘어 앞으로 주실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며 외쳤습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revival)은, ‘새로이 생명을 불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교회 부흥은 그만두고 길어지는 코로나 현상으로 점점 약해지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도도 마음껏 할 수 없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성도 수는 물론이고, 재정으로도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빛에 시달린 큰 건물의 예배당이 매물로 나왔고, 어려움 속에서 심각한 앞날의 현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1년 반 이상 몇 명 안되는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족들끼리 예배드리다가 지쳤고,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들은 현지에서 추방당하거나 코로나 여파로 힘든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 아예 선교지로 들어가지 못한 많은 분들이 사역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걱정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다시 부흥이 회복되기를 위해 하박국처럼“주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야말로 우리가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궁핍을 구할 때입니다. 부흥, 곧 회복을 갈망해야 합니다.

세계 선교사들과 선교 현장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힘들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꾸준히 잘 감당하면서 다시금 세계선교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되게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회복을 기원하는 월삭기도회 7월 기도문

전능하신 하나님.

1912년 중국 산둥성에 첫 선교사를 파송한 이후 현재 우리 총회에서 91개국, 810가정, 1528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세계에 전하는 교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씨앗이 한국 땅에서 자라나 전세계 많은 이들의 영혼을 살리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선교지로부터 비자발적으로 철수하고 원치 않게 선교지를 떠나야 하는 선교사들과 코로나19로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선교지 교회들과 성도들이 목자를 잃는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통해 교회가 더욱 굳게 서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거주할 숙소를 찾는 선교사들을 도와 주시옵고, 건강과 자녀 교육의 어려운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혹시 새로운 선교지를 찾는 이들에게는 지혜를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파송하는 협력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내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하는 선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선교지의 재산 관리와 현지 지도자로 리더십 이양, 현지교회와의 에큐메니칼 협력, 선교사의 은퇴와 이임 등의 새로운 과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정금같이 연단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위기의 시대에 세계선교를 위한 사역과 각 나라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교회 회복을 기원하는 월삭기도회(7월) / 공동기도제목

한국교회 회복을 기원하는 월삭기도회 7월 공동기도제목

※ 기도 제목

1. 비자발적인 철수와 감염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선교사를 지켜 주시옵소서.
2. 선교 현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과 사역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3. 곤경에 처한 선교사를 함께 돕는 한국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4. 팬데믹으로 인한 선교 상황의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하며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5. 전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